

나눔터

(사)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

일시: 1997년 7월 1일(화) 14:00~17: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특집호

차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이렇게 생각한다 교육현장에서의 성별화 과정과 여학생의 대응방식	3
여기는 상담실 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담	5
몸 이야기 순결교육과 어린이 성폭력예방 교육에 나타난 어린이 섹슈얼리티	8
특집 변함없이 첫마음으로	9
이원숙 소장 인터뷰	11
개소기념 세미나 논문요약	12
성문화 읽기 페미니즘의 유행, 뭔가 석연치 않다	14
기획 부조리한 성토양, 새싹을 위한 첫걸음	16
길을 따라서 홀로 선 여자는 모든 것과 만난다	18
상담소를 움직이는 사람들 책임상담원을 소개합니다	19

보관용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 린 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개소 6주년 기념 기금마련 음악회 '들꽃천지, 평등천지, 노래천지'



개소 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기금마련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객재형이 연출하고 인순이, 한영애, 신효범, 정훈희, 김장훈, 이정열, 윤도현 밴드가 출연하였으며, 원종배·정은아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7백여 명의 마음 따뜻한 관객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267차 정신대 수요시위 주관

제267차 정신대 수요시위가 본 상담소 주관으로 6월 4일 정오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상담소의 입장을 밝혔으며,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상담소 식구 등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PC상담 개설 'Go Ksvrc'

본 상담소는 6월 16일 유니텔과 마이넷에 PC상담을 개설하였다. IP명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는 국내 최초로 PC통신을 통해 성폭력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뿐 아니라 성폭력과 건강한 성지식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제7기 지킴이 실습교육

4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 7주 20강좌의 야간상담원교육을 수료한 55명의

지킴이들이 6월 한 달 동안 역할극, 상담참관, 상담일지읽기, 상담자료학습, 상담일지전산작업을 내용으로 한 상담실습을 마치고 7월부터 야간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성폭력과 관련하여 정책, 의료, 법, 문화, 심리, 상담 등 각 부문별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적 틀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상담소는 '성폭력문제연구소'를 개소하였다.

7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약 1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내의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주제발표와 전국 각 성폭력상담소에서 온 실무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상담소 전체 야유회



7월 8일 양재시민의 숲에서 모든 상담소 식구들이 함께 하는 야유회를 열었다. 상담원·지킴이·나눔이·실습생·상근자 등 54명이 참석하여, 상담소 활동의 의의를 다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연대감과 소속감을 고양

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성폭력상담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

7월 24일 본 상담소 회의실에서는 전국 23개소의 성폭력상담소 가운데 13개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각 성폭력상담소마다 상담일지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적인 통계를 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성폭력상담소들의 양적인 증가로 인해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기준 등을 논의했다.

긴급토론회

7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음란문화에 노출된 청소년!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본 상담소의 최영애 소장이 '청소년 성문화 실태와 사회적 대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 토론회에서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홀썩크는여름 : 청소년 성교육 캠프



성교육의 내실 있는 내용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기독교수양관에서 여남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캠프를 실시하였다. 성교육 캠프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시민운동 사업에 채택된 프로젝트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교육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현장에서의 성별화 과정과 여학생의 대응방식

강보길(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영어교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졸업)

1. 들어가는 글

근대 이후 대중교육은 형식적 기회균등이 보장된 대표적인 사회제도로써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교육기회와 혜택을 제공했다. 그런 이유로 교육에서 성취수준의 차이는 개인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면 현재 교육결과와 성취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결과를 낳는 것이 여성 개인의 능력문제나 가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가? 개인의 능력과 가족배경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편견과 성차별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학교와 같은 형식적 평등이 실현된 사회제도에서 성차별을 운운한다는 것이 여성주의의 고집스러운 비판의식으로 비취질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교직생활에서 형식적인 평등이 가지는 허구성과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행위자들에 의해 빚어지는 많은 성편견과 차별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성차별은 간과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학교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은 행위자, 즉 교사와 학생의 실제경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행위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편견과 차별적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형식상의 평등이 가지는 허구성과 실제적 차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하는지 약간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여학생의 성별화 기계로서 교육현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말과 태도로 전달되는 교육내용 중



에서, 특히 여성교육이라고 할 때 '여성'에는 이미 사회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어, 가치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여학생들에게 인지된다.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에서 직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여성적인' 직업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권유되는 맥락, 그리고 인성교육에서 여학생에게 여성다움이 기대되는 맥락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학교에서 기대하는 여성적 특성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허용하는 제한된 각본에 의한 것으로서 의존성, 수동성, 다소곳함, 타인에 대한 배려, 양전함 등을 말한

다. 현재 대중매체에서 기존의 편견을 깨는 다양한 여성 이미지들이 출현하지만, 정작 학교교육에서 '여성교육' 운운할 때는 전통적인 것이 가치롭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보수적인 풍토가 있다.

학습자로서 여학생은 지적능력을 개발하고 성취지향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강조되는 전형적 여성성은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지적·이성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편견은 여학생들의 능력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생물을 가르치는 한 남자 선생님이 말하는 여성의 지적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여학생은 물리, 수학에 약하다는 것을 나는 1백 퍼센트 확신한다. 여자애들은 자기가 다루기 쉬운 것만 공부한다. 생각의 폭이 얇고, 깊이 생각하는 데 약하다. 머리 돌아가는 게 남자와 차이가 난다. 그것은 여성의 유전인자의 문제라고 본다.

학교교육에는 직업을 준비하게 하는 기능적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에게는 결혼이 능사라는 말들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더구나 여성이 직업을 가진다는 것이 여성의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대사회에 맞는 또 다른 현모양처의 조건으로 제시되어 여학생들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든다.

우리들에게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요즘 남자들은 일하는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직업을 가지지 못한 여자는 무능력한 여자이지 현모양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교사들의 성편견은 여학생들의 행동, 외모 등에 관한 훈육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한다는 꼬리표가 언제나 붙는 '정숙' 지도는 학습자로서 여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적극성과 대담함을 구속한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한편으로 여학생들의 작은 목소리와 소극적인 학습태도는 가르칠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비일관적인 지도와 여학생에 대한 비일관적인 기대는 그들을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으로 몰고가기도 한다.

여학생에게 있어 학습능력 못지 않게 외모를 상당한 자원으로 평가하는 교사들의 언설은 소비적인 대중문화에서 부여하는 여성외모에 대한 시각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여학교는 성인여성의 외모를 모방하는 것을 규율로 금지하고 있는데, 성인여성의 외모를 흉내내어 눈썹밀기, 머리염색, 화장, 액세서리 등으로 자신을 연출하는 여학생들의 외모과시는 성적인 과시, 즉 성적욕망에 대한 표현으로 여겨져 통제의 대상이 된다.

학교는 이들을 '정숙한 여자'와 구분되는 '타락한 여자'로 규정하여 그들이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관용과 혜택에서 배제한다. 외모를 여성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는 교사들의 태도와 나란히 존재하는 여학생에 대한 용모통제는 학교규율이 더이상 학생들에게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들이 예쁜 여학생들에게 더 호감을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인물이 반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모 꾸미는 것을 왜 금지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일찍부터 꾸미면 더 잘 꾸밀 수도 있고, 더 많이 예뻐질 것 같거든요.

위에서 열거한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성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성별화 과정은 여성차별과 억압의 과정으로 여학생에게 여성이 사회적으로 의미화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게 하는 인식의 장이 되며, 삶의 전략을 세우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거가 된다.

3. 여학생들의 대응방식

여학생들은 능력향상과 성취지향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능력을 비하하는 성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학교교육의 이중성을 간파한다. 그 과정에서 능동적인 주체로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세운다.

첫째, 친밀성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전형적 여성성, 즉 다소곳함, 상냥함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교사-학생 관계에서 유리한 자원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로서 그들을 무력하게 할 뿐인 전형적인 여성성을 거부하고 학습자로서 그들에게 유리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표되는 전형적 남성다움의 특성을 수용한다. 그뿐 아니라 남성적 취향이나 외모를 모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전형적인 성별화 방식에 대응한다.

셋째, 여성성이 부정적으로 의미화되고 남성성이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여학생들이 가지는 친구와 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남성성 못지 않게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특성이라고 인식하는 부류가 있다.

넷째, 여성적인 외모를 과시하여 학교규율을 어기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의 여성적 외모의 과시는 학교에서 강조하는 정숙한 여성 이미지에 대한 도전이다. 그들은 친밀성의 전략과 대조되는 '힘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비슷한 성향의 또래집단을 조직하여 힘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학교에서 느끼는 무력감에 대처하려 한다. 최근 학교폭력에 관한 보도에서 여학생 폭력이 전체 학생폭력의 3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당혹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여성에게 제한된 정체성만을 허용하는 우리의 현실이 낳은 불행한 결과다. 정숙한 여자와 타락한 여자의 이분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타락한 여자로 낙인 찍힌 여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양식이 무엇이겠는가?

교육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성편견과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여학생들의 행위성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편협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실천되기 때문에 그 모순과 차별은 여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 것이다. 실제 청소년 단계에 있는 여학생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인격적 특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여성의 억압이라는 맥락에서만 성립한다.

성별화 과정이 곧 여학생의 억압을 낳는 학교교육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우선은 관리자와 교사들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한 교육현장의 변화가 절실하다. 더 나아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개인에게 다양한 정체성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성폭력피해 상담

조종신(본 상담소 상담부장)

1. 청소년 성폭력 피해실태

(1) 개소 이후

91년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 이후 97년 6월말까지 14,529회의 성폭력피해 상담을 받았다. 이중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상담이 2009건 2784회, 성폭력피해 상담이 1538건(2307회), 기타 성문제가 471건(505회)이었다. 성폭력상담 중에는 강간이 1132건(1670회), 성추행이 406건(603회)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담 현황

년도	전체 피해상담건수	청소년 피해상담건수(%)
91.92년도	1425건	265건(18.6%)
93년도	841건	168건(19.9%)
94년도	1356건	238건(17.6%)
95년도	1021건	236건(23.1%)
96년도	1779건	420건(23.6%)
97년 상반기	883건	211건(23.8%)
전체	7305건	1538건(21.1%)

또한 96년도에는 피해상담 1779건(3459회) 중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피해상담이 420건(832회)으로 큰 증가를 보였다. 당시 동네사람들에 의한 소녀가장 지속 성폭행, 교실 안에서 시험도중 출산, 교사의 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집중보도되어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었다.

(2) 97년도 상반기

1)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간 153건(72.5%), 강간미수 3건(1.4%), 성추행 55건(26.1%)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피해에서 특기할 점은 윤간 등 특수강간이 18건(8.5%), 성추행에서 남성피해가 15건(7.1%)으로 어린이나 성인피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특수강간, 남성피해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불량배, 학교폭력배 등이 집단폭행, 강도, 흉기사용, 침입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는 데서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밝혀진 사례 154건 중 이는 사람은 95건으로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는 친족 내 35건(22.8%), 데이트 상대 17건(11%), 기타 20건(13%), 선배·동급생

12건(7.8%), 교사·강사 11건(7.1%)으로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은 48건(31.2%), 가해자가 미상인 경우는 11건(7.1%)으로 나타났다.

3)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 내 피해가 높는데 이는 친족 내 성폭력이 어린이 때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족 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알게 되거나 가출 등으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선배, 동급생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은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사·강사에 의한 강간 및 성추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사제간이라는 권력관계에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 청소년 성폭력 유형별 사례

(1)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윤간

고2 여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길에 남학생 네 명에게 동네 근처의 학교 화장실로 끌려가 윤간당함.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들을 검거했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들로 일곱 차레나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왔다고 함. 현재 재판중.

(2)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고2 여학생이 PC통신으로 알게 된 남학생에게 삐삐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삐삐에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계속 녹음해 놓아 심리적인 충격을 받음.

(3) 남자 청소년의 피해

중1 남학생이 학원에 갔다 오다 집을 묻는 40대 아저씨에게 끌려가 재개발지역 빈 집에서 항문성교를 당함.

(4) 친부에 의한 강간

엄마가 가출한 후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강간당해 온 중3 여학생이 가출하여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본 상담소 열림터로 피신함. 고소하여 7년 선고. 후에 입양기관으로 연계됨.

97년도 상반기 상담현황 중 청소년 피해 현황

	유형		피해자 / 가해자 관계		피해자					소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성 폭 력	강간	일반 강간	아는 사람	친족	아버지, 오빠	2	19	28	1	-	50(5.7)	4		
					친인척	6	8	8	3	1	26(2.9)	3		
							동네사람	10	7	19	6	-	42(4.7)	12
							데이트 상대	35	16	-	-	-	51(5.8)	6
							직장상사, 동료	46	5	-	-	-	51(5.8)	5
							교사, 강사	1	6	1	1	-	9(1.0)	1
							동급생, 선후배	7	10	-	1	-	18(2.0)	-
							기타	34	13	5	-	-	52(5.9)	13
							모르는 사람	48	42	15	1	-	106(12.0)	27
							미상	16	9	4	-	5	34(3.9)	6
				윤간	13	18	3	1	-	35(4.0)	7			
		강간미수				30	3	2	-	1	36(4.1)	9		
		성추행	일반 성추행	아는 사람	친족	아버지, 오빠	1	6	7	7	-	21(2.4)	-	
	친인척					1	2	8	9	-	20(2.3)	-		
							동네사람	12	2	24	29	-	67(7.6)	22
							데이트 상대	2	1	-	-	-	3(0.3)	1
							직장상사, 동료	53	2	-	-	-	55(6.2)	5
							교사, 강사	6	5	7	2	-	20(2.3)	1
							동급생, 선후배	3	2	2	4	-	11(1.2)	-
							기타	17	7	2	5	-	31(3.5)	5
						모르는 사람	25	6	24	12	4	71(8.0)	20	
						미상	4	1	1	1	-	7(0.8)	-	
			언어추행	34	6	1	-	2	43(4.9)	-				
			남성피해	5	15	4	-	-	24(2.7)	3				
계(%)					411(46.5)	211(23.9)	165(18.7)	83(9.4)	13(1.8)	883(100)	150			
기타				성문제, 순결	102	58	7	2	2	171	1			
				인신매매	1	4	-	-	-	5	1			
				아내구타	27	-	-	-	-	27	1			
				혼인빙자	5	-	-	-	-	5	1			
				장난전화	5	3	-	-	1	9	-			
				기타(학교폭력, 폭행, 고부갈등, 가출)	57	50	7	3	8	125	4			
계				197	115	14	5	11	342	8				
계				608	326	179	88	24	1225	158				
재상담				강간	212	112	68	6	-	398	8			
				성추행	83	27	53	49	1	213	7			
				남성피해	1	3	4	-	-	8	2			
				기타	19	11	1	-	-	31	-			
계				315	153	126	55	1	650	17				
총계				923	479	305	143	25	1875	175				

(5) 집주인에 의한 소녀카장 피해

고2 여학생이 여동생과 자취를 하는데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주인이 위협하며 지속적으로 강간해 옴. 여동생마저 강간하려고 하여 같이 도망쳐 나옴. 임신 8개월이 되어 하는 수 없이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출산 후 입양.

(6) 의부에 의한 강간

자매가 의부에게 강간과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해 옴. 사실을 안 엄마가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7) 학교 교사에 의한 강간미수

학교 교사가 여러 여학생들을 성추행해 오고 있었는데 강간까지 당할 뻔한 여학생이 부모에게 알려 고소함. 증인이 되어주겠다던 다른 학생들이 발뺌을 하자 교사가 고소한 학생을 협박하여 정신이상 이 됨.

(8)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직장 내 강간

방학중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고생을 가게주인이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 끌고가서 강간함.

(9) 데이트 상대에 의한 강간

친구가 소개해 준 남학생과 두번째 만나는 날 아파트 뒤 숲속에 끌려가서 강간당함. 부모가 알고 고소하였는데 남학생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시간에 학원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무고로 맞고 소하겠다고 위협. 검사는 피해자를 불량소녀처럼 취급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며 거짓말담지기를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시달리던 피해자 부모가 고소 취하함.

3.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서의 어려움과 후유증

법적으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으로, 폭력사용 여부, 저항여부,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성폭력피해자가 되었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강간치상이나 윤간, 흉기를 소지하거나 야간에 침입하거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화간을 의심받게 된다. 이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꽤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판단능력이 있고 방어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피해가 고소되어 수사중이나 재판중에 화간이 아니었나를 의심받고 거짓말담지기를 하도록 명령받았으며, 부모의 보호도 없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되곤 했다.

가임기인 청소년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피해 중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강간으로 인해 임신이 되는 경우다.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혹시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걸린 게 아닐까 불안해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임신중절이 어려운 6개월 이상까지 손을 못쓰고 있다가 무리하게 낙태를 하여 몸을 심하게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수 없이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인 충격으로 불안, 공포, 민감, 집중력 저하, 악몽, 불면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절망감, 순결상실감, 자포자기로 섬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자해, 자살기도, 우울증 등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알까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기도 하고, 남성을 기피하고 혐오하기도 하여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학습부진, 방황, 가출, 자퇴를 하게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 자기감정을 억압하고 상처를 보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학업에만 매달리거나 종교에 빠지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과잉희생, 과잉통제를 나타내기도 하며 다중인격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많은 피해자가 무력감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성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반복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스스로 불량학생들과 어울리거나 파괴적인 분노표출로 성적 방종이나 윤락행위에 뛰어들기도 한다.

4.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

그동안 성폭력문제가 대두되면서 단계에 맞는 성교육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대안이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고 도처에 비인간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좋고 싫은 감정이 무엇인지, 자기의 의사나 주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다른 사람 특히 이성 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정한 인간관계와 애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학교폭력이나 강도, 납치 등 금품갈취와 함께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범죄 앞에 청소년들은 속수무책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가해에 대해 방어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어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어린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른들의 보호와 책임 안에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아니 청하지를 못한다.

순결을 잃었다고 한숨지며 숨기라고 하고 더 힘들어 하는 부모, 빌미를 주었다 백안시하고 비난하는 수사관, 불미스럽다고 자퇴하라는 학교, 자기 아들 신세망치게 했다고 욕을 하는 가해자 부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청소년의 피해를 선정적으로 다루는 매스컴. 이런 현실에서 피해를 피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힘을 주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은 피해를 당한 것이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고 믿고, 또 피해를 극복하고 강하게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픔을 즉시 안전하게 털어놓고 의논할 곳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청소년들 곁에 있어야 한다. 피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밝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배려해 주는 곳이 많이 있어야 한다.

본 상담소에서는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PC상담을 개설하여(go ksvrc)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밀을 보장받으며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결교육과 어린이 성폭력예방 교육에 나타난 어린이 섹슈얼리티

변혜정(본 상담소 전 총무, 단국대 여성학 강사)

“백린이 몸(눈, 얼굴, 배꼽, 잡지……)은 누구 거야?”

“내 것!”

“백린이가 싫은 데 만지거나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해?”

“싫다고 말하고 엄마에게 말해.”

다섯 살 된 딸아이는 성폭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라도 누군가 자신에게 싫은 행동을 하면 ‘아니요’, ‘싫어요’라는 거부표시를 나름대로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딸아이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들을 싫어하는 것이었다. 유달리 남자를 조심하라고 교육한 것이 아니라 자기몸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교육한 나의 의도와는 달리 딸아이는 곧잘 “나는 남자는 싫어, 여자가 좋아”라는 말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유치원에서도 ‘남자아이와는 놀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와 몸 지키기’를 가르쳐 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늦게 들어오게 되면 꼭 연락해. 남자는 늑대다. 남자랑 한방에 있지 말아라…….” 남자를 조심해야 하는 존재로 교육받았던 그 옛 일들이 떠올랐다. 월경이 시작되면서 생리를 시작한 여자아이에 대한 나의 시선은 항상 나를 괴롭혔으며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했다. 내가 누군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동시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저주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성폭력의 피해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싫었던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시키고 있다. 분명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나보다 더 빠른 교육(어렸을 때 나는 성폭력 교육을 받지 않았다) 속에서 어쩌면 더 괴로울지도 모른다. 남성중심적으로 성이 구성된 사회, 성폭력이 대부분 여성에게만 행해지는 이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전략에 수긍해야 하는 현실은 여성인 우리들을 분열시킨다.

성적인 위협과 성적인 쾌락의 긴장 사이에 여성의 삶은 놓여져 있

다. 섹슈얼리티는 강제, 억압, 위협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쾌락, 개발, 대안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의 사회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치우쳐서 이야기 되어왔다. 남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억압받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다 보니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피해보고와 그것의 예방교육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이것도 아주 최근의 일인긴 하지만). 그러나 성폭력예방 교육은 과거의 순결교육과 마찬가지로 ‘남성을 경계하는 여성’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성주체로서의 몸 지키기’라는 맥락을 강조하였다는 것이지만,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둘은 결국 마찬가지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즉 성적 억압과 피해를 강조하는,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교육은 성적인 저항과 선택을 가진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성적 주체로서의 쾌락에 초점을 맞추면 여성억압적인 가부장적 구조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여성주의자들의 우려를 간과하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남성중심적인 이중규범의 위험 속에서 여성의 경험이 배제되지 않는 주체로서의 성폭력예방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폭력이 난무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쾌락은 어떻게 개발되고 재현될 수 있는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정치적 방향성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여성주의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는 운동과 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지향적인 집단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경제적 평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물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조건 아래에서 남성의 폭력으로 인한 억압의 측면을 가시화하고, 무시되고 간과된 여성의 욕망의 가시화 전략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여성은 가부장적인 사회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은 성적인 행위자, 주체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어떻게 여성이 성적인 주체자로 저항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의 전략적인 문제는 앞으로 여성주의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첫마음으로

김보연(나눔터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약이 될 이번 연구소 개소에 사람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한 마음을 단 한 마디로 모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변함없이 첫마음으로' 이런 모두의 기대 속에서 발전해 갈 연구소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무지가 용기를 낳고 용기 속에 길이 생기고, 뜻이 있으면 항상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뜻이 있고 꿈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에 대한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의 소감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정조상실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지난 91년, 일단의 여성들이 성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변화를 이루기 위해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고자 했을 때 일반사람들에게 그것은 현실에 대한 무지였고 만용이었다. 그리고 개소 6주년이 되는 올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처음과 같은 뜻으로 성폭력 전문 연구소의 문을 여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간 몇 년 동안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적 틀의 수정을 부분적으로 이뤄내기는 했지만, 우리사회에서 여성운동단체가 이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출발 역시 6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모함으로 실패 바라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지나친 상황고려가 자칫 현실과의 타협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신념과 의지로 이상을 현실화해 내겠다는 이러한 용기는 불안하지만 더 큰 기대를 가져오게 한다.

7월 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있었던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식은 이러한 기대와 확신으로 180여 명의 참석자들이 개소식장을 가득 메운 채 곳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기념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진행된 기념식은 상담소의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와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본 상담소 박금자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성폭력 예방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실태에 관한 본 상담소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소 개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정금자(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역시 “폭력의 원인과 피해원인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는 실효성을 갖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하고, “이러한 인식개선에 연구소가 기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많은 NGO 운동들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지금 지난 6년의 운동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소를 개소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 여성들의 끈질긴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현실에 바탕을 둔 연구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축사를 갈음했다.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끌어안고 출발하는 연구소의 책임자들은 본 연구소 이원숙 소장을 위시하여 세 명의 책임연구원, 다섯 명의 분과 위원장으로 모두 아홉 명이며 이 외에도 열다섯 명의 연구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지난해부터 본 상담소 연구자문위원으로 연을 맺어 온 이원숙 소장은 이날 인사를 통해 “상담소가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 정책이나 제도의 방향설정과 추진, 인력관리, 효율적인 피해자 치료와 관리, 상담소 운영, 타단체와의 연계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면서 “좀더 체계를 갖추고 명실공히 여성운동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라고 현 연구소 개소의 의미를 이야기했다.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는 특정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의식·제도 등의 모든 요소들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원숙 소장의 연구소 취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원숙 소장은 앞으로 여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정신보건학,

사회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여러 분야와의 협조 아래 연구소가 여남이 평등한 사회,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타영역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노력은 이원숙 소장의 취임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조직구성에서도 보여진다. 이전부터 상담소 조사연구부에서 활동하던 김지혜·이경미 전 조사연구부장, 그리고 상담소 상담 자문위원인 장화정 심리상담가로 구성된 세 명의 책임상담원과 함께 연구분과는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진다.

먼저 성문화와 관련된 이론들과 성폭력 실태 등을 연구하는 문화분과와 질높은 상담 및 지원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상담 및 지원서비스 분과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연구와 상담부분에서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성관련 제도나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정책분과, 성폭력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분과가 있다. 교육분과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나눔터』 22호 참조) 가해자와 이들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네트워크분과는 국내외의 성폭력 관련기관이나 단체와의 원활한 연계 및 정보교환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연구소는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방향이 어느 한 방향에 편중되지 않고 정책과 상담, 교육, 문화이론 연구 등 각 부분과의 유기적인 협력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계획하고 있다.

이원숙 소장은 본 상담소와 마찬가지로 연구소 역시 작게 시작하지만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상근직은 많지 않지만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을 분과장으로, 또는 연구위원으로 모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운영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참여한 분과장으로는 정책분과의 신용자(전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와 문화분과의 김준호(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있다. 그리고 95년까지 본 상담소의 총무로 인연을 맺어왔던 변혜정(단국대 여성학 강사)이 교육분과장으로 활동하게 되며, 올해 초부터 본 상담소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던 김혜원(이화여대 심리학 강사)이 상담분과장을 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권진숙(나우누리 정신건강센터 소장)이 정보네트워크분과장을 책임지게 되었다.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화된 것은 작년부터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지난 6년간의 상담활동과 열린터 운영 등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연구소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

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이론과 현실의 유기적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이 당면 문제 속에서 현실의 구체적인 벽들과 부딪쳐가고 있을 때 여성문제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론 안에서 여성문제의 본질과 해결방향을 찾으려 분주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양자간의 소통이 점차 힘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가 언제까지나 분리되어 나갈 수는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이론과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운동은 모두 시초의 목표에 충실할 수 없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2부 세미나 및 종합토론회는 이와 같은 이론과 현실의 통합에 대한 여성운동 관련자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김옥순(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의 재담어린 사회로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서는 최영애 소장(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 이원숙 소장(국의 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변천과정), 조주현 교수(국내 성폭력 관련 연구의 동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시간이 마련되었다(12쪽 논문요약 참조).

이상덕(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날 토론에서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의 법적 근거가 성폭력특별법에 있지만, 상담프로그램이나 보호시설의 경우 지금의 사회복지사업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덧붙여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안에서 여성문제가 어떻게 포함되어야 할지 연대하여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덕 소장은 예산안의 문제와 함께 24시간 위기센터운영의 재정적 어려움, 도시중심으로 편중된 성폭력상담소 설립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여성중심의 사회복지가 거의 전무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애(동덕여대 여성학 교수)는 이원숙 소장의 발표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오히려 운동방향의 수정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 “현재 임시국회에 상정중인 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까지 노력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던 이날 종합토론회에서 각 여성단체 관련자들의 목소리가 모아진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론과 운동의 통합과 여성단체간의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론과 운동간의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은 동감을 표하면서 여성문제 연구자들이 여성운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연구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줄 것을 희망했다.

단체간의 연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성폭력상담소간 연대가 시급하다고 소리를 모았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23개의 성폭력상담기관이 설립해 있지만 아직까지 각 성폭력상담기관들의 상황조사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나 여성운

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약한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권 밖의 상담기관은 적은 지원체계의 협력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 상담기관들의 사례분석 및 연구자료들이 교환되어질 때 각 상담기관들에 대한 단순한 상황파악을 넘어서서 진정한 연대, 동지로서의 애정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다소 짧았다는 아쉬움을 남긴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여성단체들간의 활발한 의견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종합토론회에서 각 상담소간 연대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어짐에 따라 개소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24일, 전국성폭력상담소 대표자간담회가 본 상담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간담회는 각 상담소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연대방안을 모

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대표자들의 소리가 모아진 것은 크게 상담의 철학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과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 상담기관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책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상의 의견들을 모아내기 위해 연명의 형식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날의 만남을 마쳤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약이 될 이번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에 사람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한 마음을 단 한 마디로 모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변함없이 첫마음으로.' 이런 모두의 기대 속에서 발전해 갈 연구소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미니 인터뷰

▶ 연구소 소장직을 수락하시게 된 동기를 말해달라.

이 분야가 여성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회복지분야 등의 협력이 있어야만 보다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들이 함께 접근해서 여성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나의 전공을 (사회복지학) 활용해 볼 생각으로 기꺼이 응했다.



이원숙(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여러 분야의 학자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는 체제로 갈 계획이다.

▶ 이번 연구소 개소에 대해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기대를 가는 시선들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

우리나라의 성폭력 상담소뿐만 아니라 외국의 성폭력 위기센터 역시 항상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움직여왔다. 하나는 여성운동의 실천의 장이며, 다른 하나

는 피해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두 개의 축을 잘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연구소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운동의 실천의 장이라는 부분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 대처하고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서비스 쪽에서는 피해자가 최우선이 되는 서비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광범위한 예방교육 등을 연구소에서 보완할 때 이론과 실천이 통합된 여성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소 개소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연구소 개소를 앞두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여성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우리사회의 여성문제, 성폭력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또한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의 부설기관으로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담소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토대로 출발할 수 있었다. 아직 독립된 재정이나 공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구활동을 위한 인력보충을 마음껏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약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시스템을 보다 활발하게 활용하려고 한다. 많은 인력들이 직접 상근해서 일을 하진 못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여성학계, 사회복지계, 심리학계 등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중요한 여성운동의 실천의 장이었듯이 성폭력문제연구소 역시 그러한 여성운동의 실천의 장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연구소는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고 실태조사나 정책설립 등을 통해 여성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한다.

개소기념 세미나 논문요약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1. 현황 및 문제점

(1) 법적 측면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피해자를 직접 접해 본 여성계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현재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진행중이다.

우선 성폭력의 개념을 '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친고제를 폐지하고 친족범위를 민법과 동일하게 확대시켜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에 맞는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성희롱 조항 신설, 의료지원과 신고의무제, 전담 경찰제, 친권유보조항 신설을 통한 피해아동의 학업 전학 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제도적 측면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는 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한 경비보조와 각 경찰서에 개설된 상담전화제도다. 그러나 보조금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경찰서 상담전화의 이용률도 거의 없는 상태다.

(3) 피해자 지원 측면 - 전국에 있는 상담소의 현황분석(18개소)

현재 전국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는 23곳으로 거의 대부분의 상담소가 95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여섯 개 도와 여섯 개 도시에 23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종사자수는 도합 69명으로 해마다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상담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적자원의 확보다. 특히 의료, 법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들과의 연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보조 유무를 떠나 모든 상담소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피해자 보호시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열림터 하나뿐이다(10명 수용가능). 그러

나 학업문제, 의료적 지원체계, 타보호시설로의 연계, 경찰의 지원, 퇴소 후 지원, 심리적인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가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2.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

예방적 측면으로는 성폭력예방 교육 및 성교육의 실시,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마련, 공익광고의 필수화와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처벌적 측면에서는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확고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후 지원적 측면에서는 우선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재정적 지원과 성폭력 사건 전문 경찰제도의 확립, 의료제도적 연계망 구축, 장기보호시설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성폭력 관련 연구동향

조주현(계명대 여성학과 교수)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말은 지금과 같은 의미를 띠지 못했었다. 이 문제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여성운동단체들과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발견'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법상으로는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아내구타를 성별간의 권력차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의 한 예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국내 성폭력 관련 연구동향으로 살펴볼 자료들은 첫째 아내구타, 둘째 근친강간, 셋째 강간·성희롱 및 정책적인 대책에 관한 연구들이다.

1. 아내구타

아내구타는 그 입장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여성주의적 입장의 경우 성별권력관계를 살피게 되는데, 이러한 여성주의 아내구타 연구동향은 가족제도의 특수성보다는 성별간의 폭력이 가족제도 안에서 경험된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사회전반적

인 성별관계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구타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가부장제의 역동적 기능을 세밀하게 드러내는 작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심리·사회·법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근친강간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이후 가장 큰 '발전'은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추행과 강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현재의 연구동향은 이론과 경험이 각각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경험사례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사회 문화적 상황이 배태한 근친강간을 설명해내는 이론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 특히 근친강간에 대한 연구의 경우 관심의 대상이 피해자인 딸과 어머니에게로 향하던 것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관심의 초점에 올려보아야 하며, 그런 근친강간을 가능하게 하는 가족구조 및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3. 공간 및 성희롱, 정책적인 대책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여성주의적 연구로 1989년도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들과 한국여성학회가 발간한 『한국여성학』 제5집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책적인 대책연구로 사회복지적 대책과 법적 대책을 들 수 있으며, 법적 대책으로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 대한 논의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을 들 수 있다.

아내구타와 근친강간, 강간, 성희롱은 모두 남성성에 의한 여성통제라는 성별의식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아내구타와 근친강간의 경우 한국가족의 특수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성별권력관계는 양적 연구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질적연구의 심화에 노력해야 한다.

국외 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변천과정

이원숙(본 연구소 소장)

성폭력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비견될 정도로 오래되었으나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이 서구 사회에서조차 30년 정도의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사회의 다양한 전문분야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사

실은 거의 혁신적 변화다. 이 시점에서 성폭력위기센터 운동의 발전과정을 조망함으로써 성폭력위기센터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성폭력위기센터의 페미니스트 기원 및 역사적 전개

성폭력위기센터는 페미니스트의 전통에서 출발하였으나 그동안 사회변화와 더불어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집합주의 페미니스트 전통에서 출발한 성폭력위기센터가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사법분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성폭력위기센터가 풀뿌리 행동주의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성폭력위기센터가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비교적 페미니스트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으나, 경찰이 후원하는 피해지원체계(VSS, 성폭력의뢰센터(SARC) 등과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성폭력위기센터는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2. 성폭력위기센터의 사회변화를 위한 도전과 이에 대한 각 전문분야의 대응

그동안 성폭력위기센터의 사회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경찰, 의료, 정신의료 및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변화해 왔으며, 그 결과 이들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성폭력위기센터도 조직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해 왔으며, 타 분야 역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 등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가 상호적이라 하겠다. 또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성폭력위기센터가 전문화 및 주변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성폭력위기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며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3. 오늘날 성폭력위기센터의 위치 및 문제점

성폭력위기센터의 전문화 및 주변화 이슈는 상대적 발전단계가 다른 여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사실은 여러 인간봉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체계 구축에는 여성단체와 성폭력위기센터뿐 아니라 여러 관련전문분야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의 유행, 뭔가 석연치 않다

편집부(대표집필 : 이윤상)

요즘 꽤 많은 영화들이 여성영화, 혹은 페미니즘 영화라는 이름표를 달고 시장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어떤 운동이든 대중을 외면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중문화를 통해서 대중에게 대안적 인식의 틀이나 세계관을 보여주고 대중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무협영화나 액션영화가 남성들간의 연대를 구축해 주었듯이, 대중적인 페미니즘 영화를 통하여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만들어낼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상업화를 통한 대중화가 탐탁치 못한 것만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소위 페미니즘 영화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 극장문을 열었던 우리는 힘을 얻기 보다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뭔가 개운치 못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페미니즘'이라는 딱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봄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박철수 감독의 「산부인과」에 우리가 거는 기대는 여느 영화와 달랐다. 「301·302」, 「학생부군신위」로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떨쳤고, 상업주의에 눈멀지 않은 감독, 실험정신을 높이 평가할 만한 감독 등의 평가를 기꺼이 받고 있는 그가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것이 낭만적 사랑타령이나 섹스신이 난무한 영화에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것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한국의 킨제이 보고서', '성교육용', '性', '여성과 남성' 등의 용어들로 가득찬 홍보문안까지 합세하여 '뭔가 있는' 영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놓았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신감뿐이었다. '페미니즘' 운운한다든지 여성성을 찬양하는 페미니스트의 언어를 흉내내는 대사는 이 영화를 '페미니즘' 영화로 둔갑시켜 품격 있는 영화처럼 꾸미는데 톡톡히 기여했다. 그러나 영화의 무대가 산부인과이었을 뿐 거기에는 여성의 이야기가 없었다. 오히려 여성들의 이야기를 왜곡하는 데에 한몫 했을 뿐이다. 페미니즘을 소재로 활용해 일정 정도 흥행에 성공하기까지 했으니, 페미니즘이 흥행성과 작품성을 담보하는 마술사라도 되는 모양이다.

그뿐인가? 다른 영화에서 보기 어려웠던 적나라한 출산, 낙태 등의 장면(물론 적나라한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한몫 했다. '페미니즘'은 선정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저질영화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그야말로 대단한 효과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두 해 전에 「젓소부인 바람났네」가 엄청난 흥행기록을 낳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런 목소

리를 내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 영화가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마음 아파하지는 않았다. 단지 우리사회 성문화의 수준에 대해 개탄했던 것이다. 그러나 「산부인과」에 대한 염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싸구려가 고급인양, 가짜가 진짜인양 소비자들을 속여가면서 '페미니즘'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화를 생산하는 자의 이중성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이중심리도 가짜 페미니즘을 판치게 하는 한 요인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없으면서, 진보적이고 품격 있는 느낌의 단어들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페미니즘의 거품은 가중된다. 대중들은 페미니즘이라는 포장지에 싸여 있는 영화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페미니즘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일종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선택한 것은 상업화에 변질되어버린 페미니즘이거나, 혹은 페미니즘으로 곱게 위장된 거짓 페미니즘일 뿐이다. 대중들은 정말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수도 있지만 혹자들은 그 속에 숨어 있는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포장지에 의해 문화인식과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과시하면서, 실은 성에 관한 노골적인 묘사나 구미에 맞게 왜곡되어 버린 페미니즘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차별화'는 상품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의 하나다. 그러나 거짓된 차별화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것인양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페미니즘'이라는 딱지가 바로 이 속임수에도 이용되고 있으니 그것이 깊이 있게 숙고된 페미니즘일 리 만무하다. 「여성억압 현실에 대한 자각과 저항」 「셋 잇 오프」의 감독 게리 그레이는 자신의 영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네 명의 흑인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이 영화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영화의 재판(再版)에 불과하다. 기존의 성역할(그것이 남성적 역할이든 여성적 역할이든 간에)을 그대로 따르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이 영화가 내걸었던 여성억압에 대한 분노의 진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페미니즘'은 「셋 잇 오프」라는 그저 그런 액션영화를 무수히 많은 다른 액션영화들과 뭔가 다른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가짜 페미니즘은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물론 관객을 확보하는 것은 영화를 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사용된다면 그건 관객을 농락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코르셋」은 개봉 전부터 페미니즘적 시각을 도입했다는 등 마스크의 조명을 적지 않게 받았다. 이 영화는 뚝뚝하다고 말해지는 여주인공이 사회적 편견을 딛고 결국에는 자신감을 찾아간다는 내용의 이야기다. 더이상 전통적인 인습에 얽매어 사는 여자가 멋있지 않은 지금, 전문직업을 가진 똑똑한 여성, 남성 위주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가는 여성의 모습은 여성관객의 구미에 훨씬 잘 맞는 것일 수 있다. 또 진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페미니즘 영화'라는 간판을 내건다. 여기에는 물론 보다 많은 여성관객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계산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잘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바로 페미니즘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모든 사회적 편견을 딛고 홀로 꿋꿋하게 선 뚝뚝한 여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인습의 벽이 깨진 통쾌함을 느끼기 보다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여주인공의 당당함과 행복은 변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가짜 페미니즘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이 당당해지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기존의 사회질서나 가치관이 변화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여성 개개인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당당하게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페미니즘은 아니다. 오히려 페미니즘은 왜곡된 사회제도, 사회 이데올로기, 남성중심적 가치관의 비인간적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싸구려, 가짜 페미니즘들이 각종 문화물에 침투하고 있는가?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각종 문화매체들(앞에서 언급한 영화의 감독은 모두 남성이다)은 오직 그들의 기호와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들의 여성에 대한 무지와 무지하고자 하는, 즉 알려고 하지 않는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굳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그 패섬함의 정도는 알고도 남을 만하다.

문화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역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가 떠들석해지면 문화영역에 이것이 재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천박한 것이면 문화적 결과물도 천박한 것일 수밖에 없다. 감독 개인을 탓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성과는 별로 없다. 오히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여성이 문화상품의 주체가 될 때, 그래서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삶을 재현해낼 때에만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는 문화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작품만이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진정한 대중성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밭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불쾌하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스스로 고민하고 표현해야 한다. 어떤 남성전문가가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그는 기존사회의 전문가일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은 당연히 험겨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이런 비디오가 있습니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몇 가지 유형을 통해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줍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가격 : 18,000 원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 아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님의 성교육 교재로 적합합니다.

가격 : 18,000 원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료 2천 원을 포함하여 2만 원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우송해 드립니다.

· 구입문의 : 이윤상 부장 / 576-7128

‘홀쩍 크는 여름 : 청소년 성교육 캠프’에 다녀와서

부조리한 성토양, 새싹을 위한 첫걸음

김선우(나눔터 기자)

“페미돔은 어디에 끼는 것일까요?”

“...음...오줌 나오는 구멍이요...”(웃음...)

네번째 모듈활동 ‘궁금한 성’ 진행중.

얼마 전 소위 빨간 마후라 사건이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언론방송매체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성인식이 극에 치달았다고 혹평을 하는 한편, 주변에는 성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인간의 주된 본능의 하나인 성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던 기성세대들과 아이들의 시각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존 성교육의 공동작품으로서, 이런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음성적으로 유폐되는 잘못된, 혹은 기존의 왜곡된 성인식들만을 바탕으로 성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들의 성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홀쩍 크는 여름 : 청소년 성교육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다.

중학교 2,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성교육 캠프는 서울 불광동에 있는 한국기독교수양관에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크게 다섯 개의 모듈활동과 인간관계 프로그램, 중간 O. L. 프로그램, 들쨍날 밤의 캠프 파이어, 그리고 마지막 정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성교육 캠프를 위한 프로그램은 상담소내의 캠프팀에 의해 거의 자체 개발·준비된 것들이며, 이외의 레크레이션 활동들도 내부에서 준비되었다.

캠프의 주된 목적이 현 청소년들의 성인식에 대한 실태파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모듈구성에 있어서도 실험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즉 캠프에 참가한 여학생 열두 명과 남학생 다섯 명 등 총 열일곱 명의 학생들을 남녀혼합 모듈 두 개와 여학생 모듈 하나로 나누어 성교육에 있어 남녀혼합과 분리의 효과를 살펴려 하였다. 다만 남학생들의 수가 부족한 관계로 남학생 모듈이 구성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첫날 캠프장을 향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으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성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랑 언니랑 가보라고 권유해서요”, “잘 모르겠어요...”, “애놓고 뭐, 그런거... 다 알아요, 뻘하죠”, “성교육보다는...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등 청소년 특유의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참가하게 되었지만 그다지 큰 기대를 거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들이어서, 뻘한 것만을 다루는 형식적인 우리 성교육에 대한 이들의 불만을 느낄 수 있었다.

‘성으로 들어가자’라는 이름의 첫번째 모듈활동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는데, 첫번째는 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과 그 단어들에 대한 느낌들을 같이 만드는 작업으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다.

여학생 모듈에서는 편안하고 솔직하게 토론이 이루어져 정자, 남자에서부터 동성연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개념들이 나온 반면, 남녀혼합모듈에서는 남녀가 섞여 있기 때문인지 사고의 깊이가 다소 알아보여 아쉬웠다. 또한 남녀혼합모듈의 토론과정 중 한 남학생은 애무, 신음소리 등의 단어를 제시하는데 반해 어떤 여학생은 포르노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다고 대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성지식을 얻는 통로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과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끼리도 성에 대한 지식 차이가 엄청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성’과 관련된 단어로 ‘사랑’을 포함시킨 것은 세 모듈 중 한 모듈뿐이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성’에서 ‘사랑’이 배제돼 버린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어진 두번째 프로그램에서 사랑, 성폭력, 매매춘 등 성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몸, 관계, 쾌락이라는 세 가지 각도에서 복합적으로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의견과 교사의 보충 설명을 통해 그 의미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었다.

두번째 모듈활동인 '그림으로 보는 성'은 성인만화와 순정만화에 나타나 있는 왜곡된, 혹은 미화된 성인식들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자 한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이 직접 그렸던 네 컷의 OHP 만화는 그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이들과의 효과적인 피드백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는데, 특히 남학생들은 기존 성인만화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또한 근육질의 남성그림에 대해 남학생들은 "멋있어요!"라고 반응하는 반면 여학생은 "정그러워요"라고 표현함으로써 서로간의 인식차이를 파악하게 해주기도 했다.

세번째 모듈활동인 '바로 알아! 성폭력'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성폭력의 개념과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성폭력 퀴즈와 성폭력 패도이해, 그리고 역할극 만들기로 이루어졌다.

성폭력 퀴즈는 모듈별 공동토론을 통해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나, 학생들의 인식실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여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네번째 모듈활동인 '궁금한 성'은 학생들이 직접 써낸 질문들로 구성된 시간이었는데, 일단 학생들로부터 답을 이끌어낸 뒤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했다.

콘돔과 페미돔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콘돔을 직접 만져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은폐된 것으로만 느껴지던 성이 구체화되어 제시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다는 것 같으며, 기존의 성교육과는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마지막 다섯번째 모듈활동인 '이야기 속으로'는 다이어트, 음란 비디오 문제, 건전한 이성교제의 모습 등 주어진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라디오극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만큼 삼 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학생들의 성에 대한 시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될 수 있는 대로 의도적인 유도는 배제되었다.

각 모듈의 발표는 "개성시대니까 약간 똥똥해도 개성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음란물 비디오를 보면 자꾸 떠올라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지 않아야 되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서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건전한 이성교제를 만들어야 해요" 등의 결론으로 이어져 그들 나름의 이성관을 엿볼 수 있었다.

비록 부분적으로는 정확한 원인제시가 미흡하고 기성세대들의 폐쇄적인 성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가치관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운 일이며 다만 이런 경험

들이 씨앗이 되어 앞으로 갈등상황에 부딪쳤을 때 그들의 가치판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모듈활동이 끝나고 2박 3일 동안의 캠프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새로운 성문화 대안만들기'가 준비되었다. 학생들이 캠프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모듈별로 스케치북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각 모듈활동과 인간관계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모든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는다."

"평소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이야기하기 힘들었던 성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만화를 무심코 봐왔는데 '그림으로 보는 성'을 통해서 만화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되었다."

"성교육 사이사이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섞어서 하면 좋겠어요."

"캠프 피어어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모르는 노래만 하고, 더 크게 하고 가요도 많이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모두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친구들끼리 선생님들이 정이 함박 들어버려 캠프를 끝내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모습들이었다.

함께 한 시간들이 새로운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은 자명하거나와 학생들도 캠프를 통해 나름대로 많은 것을 얻은 모습들이었다. 아직은 성을 자연스럽게 말하기 힘든 풍토 속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교사는 "성을 말할 때 '그거'라든가 '모모통', '있잖아 그거...' 등의 은어나 대명사 표현을 삼가면 좋겠어요. 배웠으니까 당당하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겠죠"라고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더운 여름, 이 학생들은 정말 흘쩍 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다.

캠프를 통해 성교육에서는 남녀가 혼합, 혹은 분리되는 양형태가 동시에 요구되며, 일정 지식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모색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호기심과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뻗은 것이 아닌 새로운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캠프를 총괄한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이경미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를 얻었다. 그렇지만 캠프는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한 반면, 이외의 여러가지 사항들이 배려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형식을 통해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캠프를 평가했다.

또한 성교육이란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캠프를 통해 만난 이들이 계속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캠프팀에서 후속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지속적인 만남이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을 좀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홀로 선 여자는 모든 것과 만난다

이수지(나눔터 기자)

누구나 한번쯤은 낭만적인 여행을 꿈꾸게 마련이다. 달랑 작은 짐 하나를 어깨에 메고 유럽의 도시를 찾는 소녀에게도 그 마음이 예외일 수 있으랴. 혼자서

떠나는 여행은 때로는 고되기도 하고 가끔씩 쓸쓸함이 밀려오기도 하는 법. 허나 그런 것들은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생각한다면 그리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마주하기 싫은 사람과의 만남도 때때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탈리아의 피렌체. 말로만 들어보던 르네상스의 발원지 피렌체 지방에 도착한 첫 날, 지도에 코를 박고 열심히 쳐다보는 내 곁으로 웬 노인 한 분이 다가오셨다.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도와주겠다는 뜻인 것 같았다.

그 노인분과 나는 각자 다른 말을 쓰면서 손짓, 발짓을 섞어 어렵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다. 이분은 건축학자셨는데 회의인지 세미나인지가 있어서 피렌체에 왔다고 했다. 처음에 나는 나이도 많이 드신 양반이 기꺼이 도와주려는 성의가 고마워서 이 할아버지를 따라나서기로 했다. 길가에는 온통 여행객들이고 저녁무렵인데도 밝이 흰한 게, 혹 만일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구석이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경계는 늦추지 않은 채로 말이다.

이 자긍심에 가득 찬 이탈리아인 건축학자는 이 건물 저 건물을 소개하면서 그 안의 유명한 벽화와 건축물의 구조들에 관해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꾸 옆에 와서 앉으라는 등 자기 손을 내 어깨에 걸치려 들지를 만나, 참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얼굴을 대고 이야기를 하지 만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리도 친근한 척 달라붙으려 하다니,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한 말투로 싫다고 이야기했다. 처음엔 못알아듣는 척 하던 사람이 이내 왜 싫으냐고 반문을 했다. 나는 싫은 건 싫은 거다, 그 양반은 이해를 못하겠다, 너가 예뻐서 그런다, 계속 티격태격하다가, “나는 동양에서 왔고 거기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함부로 이런 짓 하지 않는다, 동양 여자들에게 이르는 게 무례한 것이다”라고 알아듣게 이야

기를 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서양 여자들에게 좀 미안한 일이었지만(서구사회에 산다고 해서 여자들의 마음이 다르겠는가). 그런데 이

여기는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의 방식(거기 사는 특정 남성들의 방식이겠지!)을 따르는 게 맞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나는 정색을 하고 내가 여기 왔다고 해서 서양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당신이 당신의 문화(?)를 존중받고 싶어하는 만큼 남의 나라 문화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그는 더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신경이 곤두서서 더이상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올랐다. 하지만 한편으론 나 이 든 분이 그래도 진심으로 인내를 해주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려는데 무례하게 갑자기 돌아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조심하시던 분께서 가뜩이나 날카로워져 있던 내게 또 다시 실수(?)를 하다니! 그는 알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며 내가 아름다워서 그런다는 ‘변명’만 둘러댈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그럴 권리는 없는 것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남자가 싫으냐고 물었다. (드디어 속을 보이시는군!)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보고 레즈비언이냐고 묻는 거다. 난 주저 없이 예스라고 대답해 버렸다. 그때의 그 할아버지의 휘둥그레진 두눈이란.

결국 나는 할아버지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좋은 설명 감사했다는 인사를 남기고서, 저녁을 같이 먹자던 그분의 얼굴은 정말로 상심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외지에서는 나를 책임지고 보살피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되기에. 게다가 여자를 바라보는 사회 구조적 편견은 절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허심탄회하게 열린 만남을 나누기에 여자라고 하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벽은 너무나 두꺼운 건지도 모른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는 피렌체 하늘 아래서 홀로 선 여자는 정말 모든 것과 마주하게 됨을 또 한 번 실감하면서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책임상담원을 소개합니다

김미숙(책임상담원)

상담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담이 늘어나고 보다 질 높은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생긴 것 중의 하나가 책임상담원제다. 따라서 책임상담원들은 일반 상담원들이 상담을 받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책임상담원은 주중에 이틀을 근무하는데, 요일은 서로 조정하여 결정한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나는 개인적 사정으로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다. 출근하면 상담부장에게 그 주의 중요활동이나 행사, 상담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듣고 면접상담이 있는지 알아본다. 면접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담에 대해 일지를 읽어보며 준비한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틈틈이 상담일지를 읽어본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 총괄적으로 어떤 상담이 있었나 훑어봄과 동시에 내가 몰랐던 부분, 특히 도요법률상담에서 다루진 법률적 문제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심리적 후유증 상담의 경우는 내가 상담을 받는다면 어떻게 상담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다른 일반상담원과의 대화도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 상담은 그 내용이 위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원이 느끼는 고충이 특히 큰 것 같다. 이럴 때 상담한 내용에 대해 토론도 하고 답답함을 서로 나누면서 유대감을 교류하여 상근자들과 상담원간의 중간역할을 잘 해내는 것도 책임상담원의 중요한 업무다. 이밖에도 책임상담원은 열림터 내담자의 면접상담과 상담일지 체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상담을 위하여 '마음길' 이철원 소장님께서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 이는 상담에 대한 기본시각을 갖추게 하는 좋은 훈련과정이다. 일반상담원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의 책임상담활동 일 년을 되돌아볼 때, 오 년 동안의 일반상담 활동과 비교하여 활동이 늘어나면서 많이 배우게 되어 무게와 깊이가 한층 더해진 느낌이다. 그러나 면접상담이 겹칠 때나 상담이 많을 때는 시간만 겨우 매꾸는 경우도 많아 상담원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하여 상담에 대한 수준 높은 슈퍼비전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한 달에 딱 한 번만이라도 커피값을 아껴주신다면

한 달에 한 번 5천원씩만 보내주셔도 그 정성이 모이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더 과감하게 후원해 주십시오. 재정적 어려움으로 피해여성을 위한 활동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마음껏 실행시키기 힘든 안타까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다양한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월단위, 혹은 연 단위로 일정액을 약정하시면(월 5천 원 이상) 상담소에서 지로용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십시오.

문의 : 박미숙 부장 / 576-7128

PC통신에 상담소가 뚝습니다!

지난 6월 16일 유니텔과 마이넷에 한국성폭력상담소 IP '성폭

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가 개설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신상으로도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성지식과 각종 상담사례, 성문제 관련기사 및 상담소 관련정보 등 다양한 자료들을 PC를 통해 안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신 접속 후 go ksvrc를 눌러주세요!

문의 : 정진욱 부장 / 576-7128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KSVRC) HINET ☎ 02-566-9100

<p>【 상담실 】</p> <p>11.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p> <p>12. 올바른 성지식 알고 싶어요</p> <p>13. 상담이 필요하세요?</p> <p>14. 도움기관 및 관련자료 목록</p>	<p>【 휴게실 】</p> <p>31. 알립니다.</p> <p>32. 개시판</p> <p>*33. 대화실</p> <p>34. 상담소 사람들</p> <p>35. 반쪽이의 그림판(만화)</p>
<p>【 자료실 】</p> <p>21. 이런 상담사례가 있습니다.</p> <p>*22. 성폭력 유형별 자료</p> <p>23. 나눔터</p> <p>24. 상담소 제작 비디오</p> <p>25. 성문제 관련기사</p>	<p>【 안 내 】</p> <p>*41. 회원가입/정보</p> <p>*42. 회원만 보세요</p>

한국 성폭력 상담소 ☎ 02-529-4271~2
* 표시는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번호/명령 : H(도움말) T(초기화면) P(상위) X(종료)
선택>>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1만 4천여 회의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 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뢰 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 576-7128

환영합니다

이번에 7기 지킴이 교육을 마치시고 앞으로 1년간 상담소의 밤을 지켜줄 지킴이 들입니다.

강소정, 강효숙, 고금미, 구정아, 권희은, 김광숙, 김명희, 김민주, 김보영, 김성애, 김성연, 김세민, 김수영, 김수진, 김수현, 김신애, 김유경, 김은미, 김주화, 김현란, 김희영, 박근혜, 박지영, 박혜은, 방미강, 송향미, 신승은, 신은삼, 신재민, 안선형, 이명희, 임민희, 임선영, 정현수, 정현정, 조수연, 조현정, 조현진, 조혜순, 최미영, 최정아, 한미희, 김도영, 김수진, 김영준, 김재연, 박진석, 이석제, 최재명,

새로운 후원회원을 소개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광, 김선경, 김은희, 남준현, 배수란, 배은경, 서미란, 양창수, 유호, 이상호, 이석희, 이윤미, 이재혁, 임자영, 정의석, 최종혁, 홍사훈

상담소의 새 회원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순례, 김병숙, 김성애, 김인수, 김혜원, 노미연, 박미숙, 서혜석, 심지원, 안재숙, 오현숙, 이경룡, 이상경, 이상만, 이운상, 이철원, 이현수, 임종은, 장화정, 정경원, 정연옥, 정유석, 조혜순, 최은순, 홍보연, 허라금

도움을 주신 개인과 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광고협찬 : (주)대교, (주)메디슨, (주)녹십자, 길병원, 정영덕 성형외과, (주)태평양, 한국웨링, (주)아데네, 서울치과, 남서문
- 기부금 : 조순, 이희호, 이희창, 정은아, 조남호, 바르게 사는 사람들, 허람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캠프 후원 : 동아오츠카(주), 제일제당

우리 상담소의 심벌 ♀는 '여성들의 자매애'를 상징합니다

본 상담소 심벌인 ♀는 여성을 나타내는 ♀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에서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 과 자매애'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가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린터 : 529-4271~2, 위기상담 : 573-1888

이사

강학중 · 문해란 · 민병진 · 박금자 · 오세민 · 윤장순 · 이종걸 · 조영황 · 최영애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자문위원

상담 인간재활학/김종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심리상담가 /장화정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이철원·정연옥 심리학/이윤로·이장호·이혜성·장연집·채규만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한인영

법률 검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례·권성희·김삼화·박성호·박찬운·신기남·이명숙·이백수·이상경·이유정·이종걸·이광아·임종인·장재호·장철우·정갑생·정성광·정연순·조영황·최은순 경찰/김강자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강신용·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최영식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남소자·문영규·민용기·박경자·박금자·박양실·박종민·윤경·이길여·이옥주·임용택·장경원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최보문 신경정신과/김광일·김동순·김병후·김정일·남정현·양창순·이나미·이수경·최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옥·문해란

PC상담 통신/김형준 여론조사/이상경

연구 사회학/김준호·심영희·조형 여성학/김은실·이재경·장필화·조주현·허라금 인류학/장병호 철학/이상화·장대현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청소년 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숙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사회사업학/이원숙

홍보 출판 시사민평가/최정현 신문방송학/김응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오숙희 연구/김지숙·손숙 출판/강학중·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카피라이터/홍성애

재정 의사/민병진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세무사/차재능 대한적십자사 자원위원/윤장순

교육 교사/김성애·이순열 교육학/김인수·정유성 사회복지학/신필균 청소년교육/이규미 문화인류학/정병호

대표이사 · 박금자
소 장 · 최영애